

IAEA 본부가 비엔나에 있는 까닭

김 병 구

IAEA 동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협력국장

매년 10월 26일은 오스트리아의 국경일(Nationalfeiertag)로, 덕분에 비엔나의 UN 직원도 이 날은 공휴일이다.

우리의 8.15 광복절과 미국의 July 4th 독립 기념일에 해당하는 날인데, 필자가 근무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비엔나 유치 과정과 무관치 않은 것 같아 알아보니 그 사연은 대강 이러하다.

오스트리아(Oesterreich)는 우리말로 표기하면 호주인 오스트랄리아(Australia)와 비슷하여 혼돈하기 쉬우나 독일어 원어의 Oesterreich는 '동쪽(oest) 국가(reich)' 라는 말에서 나왔다 한다.

16세기부터 1차 세계 대전까지 동유럽의 맹주이던 합스부르크 왕조가 유럽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 신성 로마제국의 가톨릭 문화권과 희랍/러시아 정교회 문화권이 만나는 위치로 서유럽 중심으로 볼 때는 동쪽 끝이 된다.

20세기 초반, 25년 간격으로 발발하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서 오스트리아는 두 번 다 독일과 한편이 되어 패전국의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차 대전의 발발은 1914년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트 황태자가 사라예보에서 암살됨으로 시작되었고, 2차 대전은 오스트리아 태생의 히틀러가 시작하였으니 이 나라의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다.

악명 높은 나치의 비밀경찰 GESTAPO 본부가 있었다는 비엔나 시내 복판은 2차 세계 대전 말기에 연합군의 집중 폭격으로 지금은 관광 1번지인 스테판 성당까

지도 폐허가 되는 비극을 맞게 된다.

1945년 종전 직후 미·소·영·불의 승전 4국은 베를린과 비엔나를 각각 점령군으로 진주하여 군부(軍部) 신탁 통치를 하게 되는데, 오스트리아는 10년 후인 1955년에 가서야 주권을 회복하는 수모를 감수해야 했다.

1955년 5월 15일 드디어 승전 4국은 오스트리아의 영세 중립국으로의 독립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고 철군을 시작하는데, 점령군의 마지막 부대(소련군)가 비엔나를 철수한 날이 1955년 10월 26일이란다.

얼마나 패전국으로의 수모가 서러웠으면 독립 공화국이 수립된 5월 15일을 국경일로 하지 않고 마지막 점령군이 철수한 10월 26일을 독립 기념일로 정하였을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비엔나를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느끼는 현지인들, 특히 비엔나 토박이들의 쌀쌀한 태도는 아마도 패전국 국민과 승전국 점령군 사이의 갈등에서 유래되었을 법하다.

국제 외교에 관록을 자랑하는 오스트리아는 10년간의 신탁 통치 기간 중에 과거 합스부르크 왕조의 자존심은 모두 접어두고 냉전 시대에 살아남을 국가 전략을 고심했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동서 냉전에 어디에도 붙지 않는다는 '영세 중립국' 인데 아무리 혼자 천명한들 주위 강대국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해서 나온 구체안이 오스트리아 정부가 발벗고 나서 국제 기구, 특히 UN 산하 기구들을 비엔나로 유치하는 데



IAEA 총회 장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국제 기구의 유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도나우 강 건너 부지에 1979년 현대식 Vienna International Center(VIC) 신도시를 완공하고 단돈 1달러/년에 UN에 장기 임대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VIC에 입주한 UN 국제 기구는 모두 14 기구로 총 직원 수가 4,000명에 달하는데 그 중 IAEA가 2,300명으로 가장 크고 지명도가 높은 기구로 알려져 있다.

총력을 다 하였다.

1953년 Atoms for Peace 제창으로 태동이 된 IAEA가 1957년 공식 창립한 본부 위치가 비엔나 한 북판의 Ring 노른자 위에 있는 현재 ANA Grand Hotel 건물이었다는 사실은 이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 기구의 유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도나우 강 건너 부지에 1979년 현대식 Vienna International Center (VIC) 신도시를 완공하고 단돈 1달러/년에 UN에 장기 임대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한다. 전 세계에 산재한 수많은 UN 산하 기구의 본부 건물 중에 그 수려함과 기능성에서 VIC를 으뜸으로 꼽는 것은 비엔나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공통된 찬사이다.

매년 VIC에서 개최되는 크고 작은 국제 회의 수만도 수천 건에 공식 회의 참석 방문객도 수만 명이 넘을 터이니 그들이 비엔나 지역 경제에 뿌리고 가는 기여도도 만만치 않을 게 분명하다. VIC에 입주한 UN 국제 기구

는 모두 14 기구로 총 직원 수가 4,000명에 달하는데 그 중 IAEA가 2,300명으로 가장 크고 지명도가 높은 기구로 알려져 있다.

실상 오스트리아는 정부와 국민이 모두 반핵 환경주의가 압도적이라, 1978년 비엔나 근교에 건설을 마친 Zwentendorf 원자력발전소(730 MWe Siemens BWR형)를 핵연료 장전 직전에 국민 투표로 영구 폐쇄를 강행한 사실이 흥미롭다.

이렇게 보면 이 나라가 국제원자력기구를 왜 비엔나로 유치했을까 의심이 날 수도 있겠으나 더 큰 오스트리아의 지대한 관심은 UN 기구를 가능한 많이, 그 중에도 크고 유력한 기구를 자기 나라에 불박아 놓아야 그 어느 누구도 이 나라를 넘볼 수 없겠다는 역사의 교훈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외교·안보 차원을 통틀어 IAEA 보다 더 이에 적합한 UN 기구가 또 어디 있겠는가? ☸